

깜짝포 '펑펑펑'... 엔트리 경쟁 불붙었다

KIA 타이거즈 자체 홍백전

KIA 타이거즈의 엔트리 경쟁 '제2막'이 울렸다.

KIA는 지난 20·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홍백전을 갖고 2020시즌 퍼즐 맞추기를 재개했다. 두 경기를 통해 KIA의 가능성과 남은 조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달아 '깜짝포'가 터지면서 야수진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4번 타자로 선 나지완이 20일 고영창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며 홍백전 1호 홈런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KIA 화력의 키를 쥐고 있는 나지완의 홈런에 이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도 한방이 터졌다.

외야수 김호령이 복귀 타석에서 2루타를 때린 데 이어 두 번째 타석에서는 마무리 문경찬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장식했다.

지난 가을 경찰청에서 제대한 김호령은 허리 통증으로 재활군이 됐고, 스프링캠프를 앞두고는 손가락 부상을 당해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수비 실력을 갖추고도 윌리엄스 감독에게 어필하지 못했던 김호령은 부상 후 첫 실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외야가 윌리엄스 감독이 고민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반가



김호령

나지완 1호 홈런 이어 김호령·황대인 불방망이 과시 마운드, 4·5선발과 사이드암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

운 김호령의 활약이었다.

지난해 중견수로 맹활약한 이창진이 허리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하는 등 외야는 얇은 선수층과 허약한 수비로 고민 많은 부분이었다.

내야에서는 '기대주' 황대인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파워를 과시했다.

황대인은 21일 경기에서 3안타를 기록했다. 이 중 두 개의 타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갔다.

첫 타석에서 삼진을 기록한 황대인은 홍상삼과의 두 번째 승부에서는 선두타자로

나와 좌월 솔로포를 날렸다. 황대인은 이어진 타석에서는 우전 안타에 이어 다시 투런포를 터트리며 그라운드를 들쭉했다.

낮선 1루에서 경쟁 중인 황대인은 자신만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였다.

이외에 플로리다 캠프가 아닌 합평에서 칼을 갈았던 선수들도 새로 경쟁에 뛰어 들었다.

야수에서는 유재신, 최정민, 이진경, 이인환, 김연준, 이원빈이 홍백전에 나섰다. 이 중 대졸 신인 이인환은 7타석에서 3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했고, 최정민과 유재신

은 빠른 발로 어필 무대를 펼쳤다.

팔꿈치 수술로 재활을 해왔던 투수 황인준은 첫 실전에서 10개의 공으로 1이닝을 처리하며 박수를 받았다.

마운드 조각 맞추기는 진행 중이다. 4·5선발과 사이드암이 남은 조각이다.

확실한 선발 양현종과 기능이 각각 20일과 21일 3이닝을 소화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캠프에서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이민우와 가장 빠른 구속의 홍상삼이 나란히 4이닝을 던지며 선발 경쟁을 이어갔다. 홍건희도 2이닝의 깜짝한 피칭을 선보였다.

'잠수함 투수' 역시 KIA 벤치가 유심히 살펴보는 부분이다. KIA는 좌완 필승조와 함께 확실한 사이드암을 찾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드암 박준표가 올 시즌에도 불펜에서 전전후 활약을 하게 됐지만, 혼자서는 벅하다. 임기영이 선발 경쟁 중인 가운데 KIA는 앞선 두 차례의 홍백전에서 6명의 사이드암을 가동했다.

박준표 포함 변시원, 박동민, 박진태, 서덕원 등 캠프에 참가한 이들과 합평에서 시즌을 준비한 고졸 루키 강민수가 마운드에 올라 사이드암 경쟁을 펼쳤다.

한편 22일 하루 휴식을 취한 KIA는 23일 일부러 격일로 홍백전을 이어간다. 27·29일 경기는 오후 6시 야간 경기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홈런 자만하지 않고 1루 기회 왔을 때 잡겠다"

KIA 황대인

기다렸던 KIA 타이거즈 황대인의 홈런이 터졌다.

그것도 두 개가 동시에 터졌지만 황대인은 "의미를 안 두려고 한다. 앞으로 잘해야 한다"며 차분한 소감을 밝혔다.

황대인은 지난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홍백전에서 두 개의 홈런 2개 포함 3안타 경기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황대인은 2015년 입단 당시부터 KIA의 미래 거포로 주목받았던 유망주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 모처럼 이번 스프링캠프를 부상 없이 완주했지만 연습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지 못했다.

몸쪽 높은 직구와 몸쪽 낮은 직구를 잡아당겨 담장을 넘긴 황대인은 "운이 좋았다. 원하는 코스에 공이 와서 쳤다. 코치님들이 캠프 때 주문하신 게 존을 그려놓고 치라는 것인데 존에 공이 들어왔는데 운 좋게 맞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습을 계속했는데 생각했던 불이 들어왔다. 존을 그려놓고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자기 볼도 아닌데 치다보면 안 좋은 타구와 삼진도 많이 나오니까 내 볼을 그려놓고 선구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삼진도 좋고 타구도 좋아진 것 같다. 존은 그날그날 투수에 따라서 상황마다 다르게 설정한다"고 덧붙였다.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존을 설정해 노력한 게 결과로 이어졌다. 장타에 대한 마음의 부담은 덜었지만 황대인은 초

심을 말한다.

황대인은 "(홈런에) 의미를 안 두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자만할 수도 있다. 홈런 친 것은 홈런 친 것이고 내일부터 다르게 해야 한다. 앞으로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타격도 타격이지만 황대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수비다. 익숙하지 않은 1루에서 황대인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황대인은 "방망이도 보완할 게 많은데 수비를 잘해야 한다. 3루를 하다 보니까 (1루에서는) 타구 시선이 다르다. 그걸 익히는 게 오래 걸렸고 생각보다 1루가 어렵다. 상황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어렵다"며 "기회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안 아프고 기회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대인

2020 KIA 타이거즈
연습경기 중계일정

Youtube KIA 타이거즈 TV 생중계

23 MON	25 WED	27 FRI	29 SUN
1PM	1PM	6PM	6PM

*23,27일 경기: 네이버, 다음 / SKT, KT, LG U+ 동시 생중계

KIA 홍백전

유튜브·포털 중계방송

'호랑이 군단'의 홍백전을 유튜브와 포털에서 시청할 수 있다. KIA 타이거즈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자체 연습경기를 생중계한다.

이에 따라 격일(23·25·27·29일)로 진행되는 홍백전 4경기가 팬들을 찾아간다.

홍백전은 KIA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 타이거즈 TV'를 통해 방송된다. 23일과 27일 홍백전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및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U+)를 통해서도 방송된다.

이번 중계를 위해 카메라 3대가 투입되고, 광주지역 케이블TV CMB 프로야구중계를 담당하는 흥성의 캐스터가 해설을 맡는다.

KI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연습경기 중계를 준비했다"면서 "많은 시청을 바라며, 우리 선수들이 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계현 KIA 단장 선거캠프 방문 논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구단 외부접촉 최소화하는데 강원서 복지센터 간담회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조계현 KIA 타이거즈 단장의 행보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 단장은 지난 1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후보의 캠프를 방문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조계현 기아 타이거즈 단장님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해당 후보 측이 주선한 행사다. <사진>

후보 측은 조 단장이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한 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조계현 기아 타이거즈 단장님 캠프방문'이었다.

후보는 조 단장의 연세대 동기다. 친분 때문에 행사에 참가했지만 선수단을 대표하는 단장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단이 코로나19 때문에 초긴장 상태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 시점이기 때문이다.

프린트는 감염을 막기 위해 각 팀이 4~5곳에 분산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체온 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동선도 분리하면서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열 환자만 나와도 전체 훈련을 중단할 정도로 각 구단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술선해야할 조 단장이 하지 않아도 될 대외 활동을 한 점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조 단장은 "대학 친구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는 휴가기간이었으며 최대한 신중하게 처신했다"고 구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토트넘 2월의 선수

팬 투표서 압도적 지지

오른팔 골절로 재활을 시작한 손흥민(28)이 토트넘의 2월의 선수 투표에서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2월의 선수' 투표에서 79.79%를 차지해 위고 요리스(골키퍼·10.84%)를 크게 따돌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해 9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번 시즌 통산 4번째 '토트넘 이달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월에 3경기에 출전해 4골을 쏟아내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2월 16일 애스턴 빌라전에서는 멀티골(2골)을 뽑아 냈지만 오른팔 골절을 당해 그라운드를 잠시 떠나야 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체 홍백전에서 홈팀 선발 투수 양현종이 2회 말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